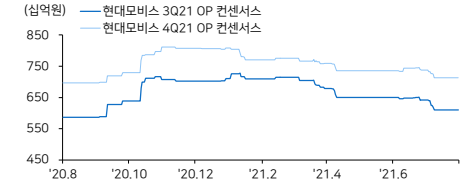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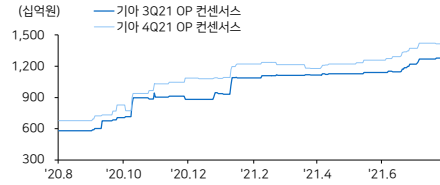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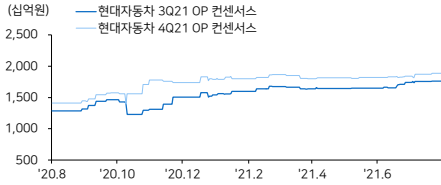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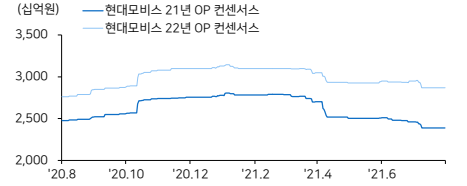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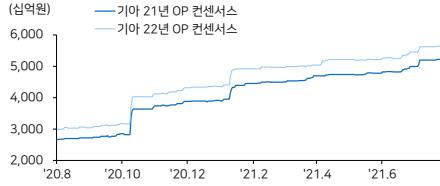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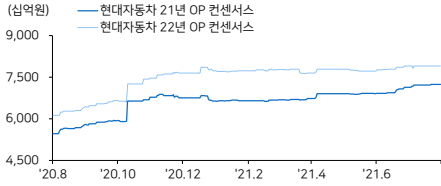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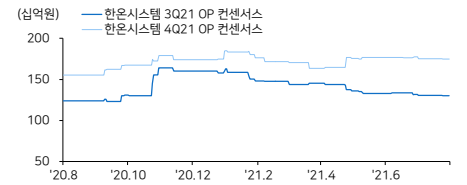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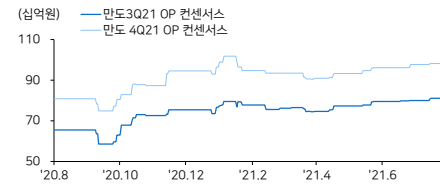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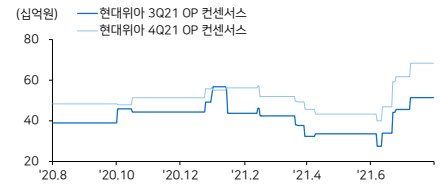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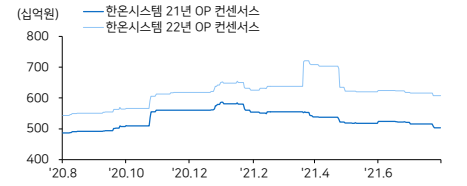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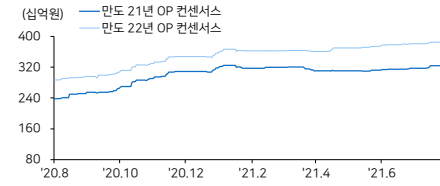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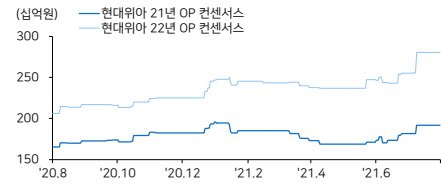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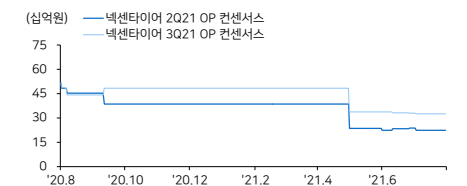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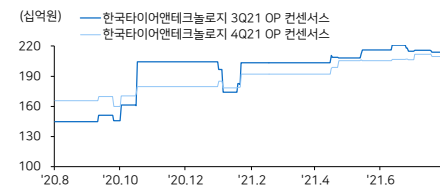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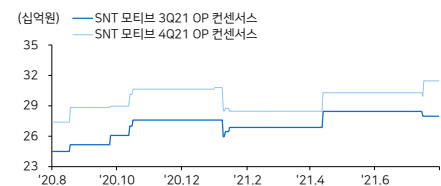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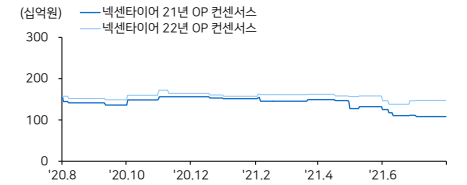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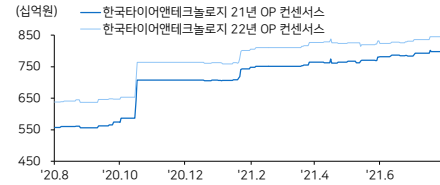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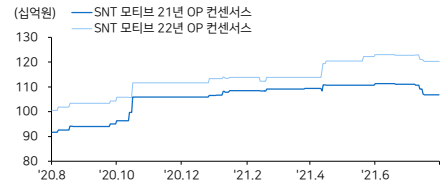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벤츠, 독일서 미래 전기차 대전 벌인다 (한국경제)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못박은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독일 'IAA 모빌리티 2021'에 참가해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하기로 함. 기존 전기차 전환 시점인 2040년을 앞당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https://bit.ly/3sOGjOQ>

현대차, 글로벌 틈5 안착...전기차는 '주춤' (경상일보)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338만 2천대를 판매하며 GM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5위를 차지함.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중국계 전기차 업체인 BYD가 6위를 차지하며 5위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DeXwFG>

GM 전기차 '볼트EV' 리콜 후에도 화재... 국내 출시 연기 불가피 (조선비즈)

GM은 20일(현지시간) '17~19년식 쉐보레 볼트EV 일부 모델에 한해 진행했던 자발적 리콜 조치된 볼트EUV를 포함한 볼트EV 전 모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5만대를 넘어선 전량.
<https://bit.ly/389M8g2>

구글 웨이모, 도로 자율주행 2000만 마일 달성 (THE GURU)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의 일보도로 주행거리가 2,000만 마일(3,218만6,880km)을 달성하면서 진보된 센서와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매주 10만 마일씩 일보도로 주행을 진행 중.
<https://bit.ly/3zcT6Nk>

현대차그룹, UAM 시장 선점 '사활'...주도권 확보 노린다 (매일일보)

현대차는 UAM 개발 등을 위해 작년 6월 미국에 설립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 LLC' 지분을 현대모비스(33.4%)·기아(22.2%)와 분할함. 신성장동력인 UAM 사업 지분을 공유하면서 계열사들이 사업 강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https://bit.ly/3kfN5t3>

상반기 전 세계 車 판매량 6% 감소... 친환경차는 125% 증가 (머니S)

올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4142만4,000대로 전년 하반기 대비 6% 감소한 반면, 친환경차(xEV) 부문은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각국의 보급정책 영향으로 494만 8천대 판매하며 YoY 125% 증가(전년 하반기 대비 23% 증가)
<https://bit.ly/2UifvFx>

폭스바겐 전기차 ID.3 네덜란드서 화재 (THE GURU)

네덜란드 흐로닝언 주택가에 정차된 폭스바겐 ID.3에 화재가 발생하며 논란이 지속 중. ID.3는 폭스바겐의 MEB 기반 전기차 ID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로 지난 2019년 출시됐으며,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만 5만3,138대가 판매됨.
<https://bit.ly/3f8547P>

Ford doubles Lightning production target on strong pre-launch demand -sources (Reuters)

포드는 2022년 출시를 앞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강한 사전 수요로 생산목표를 두배로 상향했으며, 이를 위해 8.5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함. 라이트닝의 사전예약자는 12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reut.rs/3jd66g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